

2013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①	3	③	4	③	5	②
6	④	7	③	8	⑤	9	②	10	③
11	⑤	12	①	13	②	14	②	15	⑤
16	⑤	17	④	18	④	19	④	20	③
21	②	22	④	23	③	24	④	25	③
26	①	27	③	28	①	29	①	30	③
31	④	32	⑤	33	①	34	⑤	35	④
36	⑤	37	⑤	38	②	39	⑤	40	②
41	①	42	②	43	④	44	③	45	①

해설

1. [출제의도] 말하기 태도와 그 효과를 파악한다.

선배는 아나운서 시험에 네 번이나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합격할 수 있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후배를 위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선배는 '저런'이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였지만, 후배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므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다. ⑤ 선배의 구체적인 행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방송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무 개구리'는 물과 추위에 약하지만, 물이 부족하고 추위가 심한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추위를 이용하여 물을 얻어 생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위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의 방법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나무 개구리'는 천적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무 개구리'는 사막이라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는 것이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⑤ '나무 개구리'가 삶의 과정에서 다른 생명체와 경쟁하는 내용은 방송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3. [출제의도] 토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한다.

학급 회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급회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수학적 행을 갈 때 조를 어떤 방식으로 짤 것인가를 결정하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개별 토의 발표자들은 안건에 대하여 '원하는 친구들끼리', '번호 순서대로', '제비뽑기' 등의 생각을 발표하고 있다. ④ 학급회장은 토의 과정에서 발표된 안건들을 '원하는 친구끼리', '번호 순서대로', '제비뽑기'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⑤ 학급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찬반 투표표를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발언으로 의결 방식을 발표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말하기 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조언한다.

상대방의 말하기를 위한 조언은 상대방의 발표 태도 중 부적절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수지'는 현재 안건이 '조를 짜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여행 장소 결정'이라는 안건에서 벗어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수지'는 발언 중에 어느 누구도 비방한 적이 없다. ② '수지'는 '제비뽑기'를 통한 의결 방식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수지'는 학급회장의 발언이 끝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토의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의견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 [출제의도] 말하기의 적절한 태도를 이해한다.

선생님은 한과가 복극의 기온 상승 때문에 '극 제트'가 약화되어 복극의 찬 기운이 우리나라로 내려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한과의 빈번한 발생 원인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선생님의 수업 내용은 '한과를 다른 대상에 빗대기', '한과와 대비되는 자연 현상', '한과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한과의 종류' 등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한다.

선생님이 부여한 과제는 학생들의 질문을 반영하여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한과를 초래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문한 학생이 없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의 질문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의 질문에서 관련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⑤ 학생 3의 질문에서 한과의 피해, 대비 방안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구상이다.

7. [출제의도] 제시된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쓴다.

주어진 문장의 서술어는 '이어진다'이고, 주어는 '그 이유'이다. 그런데 이 둘은 호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서술어를 '이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⑤ '비치는' '갓추어 둠'의 의미로 쓰인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춰 표현한다.

'고려할 점'에 의하면 쓰고자 하는 문장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나는 고궁 방문을 권유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고궁을 의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만족하는 것은 ⑤이다. '고궁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무생물인 '고궁'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한 표현이다. 그리고 '고궁을 찾아가 아름다운 고궁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말은 고궁 방문을 권유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④에는 고궁 방문을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의인화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은 간접적으로 고궁 방문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의인과 대상이 '고궁'이 아니라 '자연과 예술'이다.

9. [출제의도] 글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생성한다.

<보기 1>의 사고 과정을 볼 때 학생이 쓰고자 하는 내용은 '자격증 취득 열풍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격증 취득 열풍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자'는 것이다. 그리고 '작문 상황'을 보면 써야 할 글은 '사설'이다. 즉 설득하는 글인 것이다. 이를 충족하는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④, ⑤는 <보기 1>의 사고 과정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③은 내용으로 볼 때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주제문이다. 그러므로 글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계획한다.

(다)-1의 자료는 발표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1년 동안 발급되는 자격증의 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격증 취득 열풍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 열풍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한다.

'별이 많다'는 '별'과 '이', ' 많-', '-다'로 분석된다. 이때 '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풀이] ① '하늘'에는 '하늘'과 '에'가 결합된 것이므로 자립 형태소 하나와 의존 형태소 하나로 분석된다. ② '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③ '많다'는 ' 많-'과 '-다'라는 의존 형태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④ '에'와 '이'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12. [출제의도] 문장의 중의성을 적절하게 해소한다.

'키가 큰 친구의 동생'은 '친구가 키가 크다'와 '동생이 키가 크다'라는 중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첨표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키가 큰, 친구의 동생'은 '동생이 키가 크다'는 뜻이고, '키가 큰 친구의, 동생'이라고 하면 '친구의 키가 크다'는 뜻이다.

[오답풀이] ②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뜻한다. 어휘 의미 자체가 중의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L'은 다의어로 인한 중의적 표현이 아니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③ L은 '함께'라는 새로운 부사어를 첨가하여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④ L은 어순을 변경하여 뜻을 명확하게 한 사례이고, ⑤ L은 조사를 첨가하여 뜻을 분명하게 한 사례이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종류를 이해한다.

'멋쟁이'는 '멋'이라는 어근과 '-쟁이'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고, '몰래카메라'는 '몰래'와 '카메라'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그리고 '베나무'는 '베'와 '나무'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푹사랑'은 '푹-'이라는 접사와 '사랑'이라는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14. [출제의도] 표준발음법을 이해한다.

'막대'에서는 받침 'ㄱ' 뒤에 'ㄷ'이 연결되어 'ㄷ'이 된 소리로 발음된다. 그리고 '발진(發震)'은 한자어로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례이다.

[오답풀이] ① '굴뚝'은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례가 아니다. ③ '결출'에서 받침 'ㄹ' 뒤에 온 'ㄷ'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④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되는데, 이는 된소리 현상이 아니라 L첨가 현상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열기구'에서 받침 'ㄹ' 뒤에 'ㄱ'이 연결되었는데, 'ㄱ'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피동 표현을 이해한다.

'태풍에 건물이 흔들린다.'는 건물이라는 주체가 태풍에 의해 흔들림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이다. 즉, 주체가 남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의 '당기다'와 ④의 '놀리다'는 능동 표현이고, ②의 '감기다'와 ③의 '떡이다'는 사동 표현이다.

[16~18] (현대시) (가) 기형도, 「엄마 걱정」 / (나) 백석, 「여승」

(가) 기형도, 「엄마 걱정」
이 작품은 어떤 시절 외로움과 무서움을 느끼면서 빈방에서 홀로 엄마를 기다렸던 유년기의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겨 있는 화자의 정서를 담고 있다. 1연에는 유년기의 경험이 드러나 있고, 2연에는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나) 백석, 「여승」
이 작품은 가정이 해체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여승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 그 여인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담고 있다.

16.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나)는 화자가 관찰자적인 위치에서 '여승'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차분하게 표현하고 있다. 영탄적 어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1연은 과거, 2연은 현재라고 할 수 있다. (나)의 1연은 여인과 재회한 시점에서의 현재이고, 2~4연은 그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서사 구조상 '지아비가 집을 나감(3연)' →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삼(2연)' → '딸 아이가 죽음(3연)' → '여인이 여승이 됨(4연)' → '여승이 된 여인과 재회함(1연)'으로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② (가)는 '엄마' 또는 '유년기의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을, (나)는 '여승'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을 담고 있다. ③ (가)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나)는 화자가 '여승'이라는 시적 대상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는 '윗목'이라는 명사로 시를 종결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시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

혼자 일드려 홀쭉거리게 되었다는 문맥을 통해 '빗소리'는 화자의 무섭고 외로운 심리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빗소리'에 위안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상황에서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련히'보다는 '고요히'라는 시어를 선택함으로써 화자가 느끼고 있는 무섭고 외로운 심리를 더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삼십 단'의 무게감이 열무를 팔러 간 엄마의 고단한 삶의 무게와 연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친절히'에는 엄마를 기다리며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무서움을 화자가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타박타박'은 '조금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양'을 의미하고, '뚜벅뚜벅'은 '발자국 소리를 뚜벅이 내며 잇따라 걸어가는 모양'을 의미한다. '배추잎'이라는 시어를 고려할 때, '타박타박'은 지친 엄마의 고단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⑤ '윗목'은 차가운 곳으로 가난하고 서러웠던 화자의 유년기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시의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산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라는 시구를 통해 ㉠의 '울은'은 시적 대상인 여승의 한과 서러움이 '산평'이라는 자연물에 이입된 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21] (기술) 신창훈, 『세일 가스 개발 핵심 기술 조사 및 분류』

최근 에너지 고갈 문제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일 가스 채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세일 가스 채굴법의 핵심은 수평정 시추법과 수압 파쇄법인데, 이를 활용하여 세일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드릴의 구조와 드릴 진행 방향의 원리, 그리고 시추공에 균열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일 가스 채굴법이 혈압과 세일 가스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기존의 기술을 보완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임을, 수평정 시추법과 수압 파쇄법을 응용한 새로운 채굴법을 통해 알려주는 글이다.

19.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를 확인한다.

첫째 단락에 세일 가스가 최근까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유는 '순쉽게 채굴할 수 있는 천연 가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④의 답

이 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는 첫째 단락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세일 가스'의 총량, '고갈 시기' 등에 대한 정보는 글을 통해 얻을 수 없다. ③과 ⑤도 역시 구체적인 성분이나 채굴 단계에 대한 정보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20. [출제의도] 시각 자료를 이용하여 내용을 추론한다.

A는 'Kick-off'이므로 드릴의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진흙 분사가 시작되고, B는 진입점이므로 드릴의 진행 방향을 고정시키기 위해 진흙 분사를 멈추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ㄱ은 옳은 진술이다. 드릴의 진행은 휘어지고자 하는 방향에 큰 분사구를 놓고 진흙 분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ㄴ은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시추공이 뚫리면 수압분사용 파이프를 넣고 균열을 만드는 데 진입점에서 먼 시추공의 끝에서부터 먼저 균열이 만들어지므로 B에서 멀리 떨어진 균열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ㄷ은 잘못된 진술이다. 시추공 속의 마개는 균열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마개에 의해 수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ㄹ은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한 반응이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한다.

입자와 입자 사이가 조밀하다는 내용은 글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지표면에 수십 개의 시추공을 뚫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혈압에 수직으로 시추공을 뚫을 수 없다는 정보는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입자와 입자 사이가 조밀하다는 것은 유체 투과가 어렵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23] (고전 시가) (가)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가) 작자 미상, 사설시조
이 작품은 약자인 '파리'를 물고 위세를 뽐내지만 '백송골'이라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두꺼비를 통해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두엄' 위에 올라 앉아 허세를 부리다가 '백송골'이 나타나자 급히 피하다가 두엄더미 아래로 떨어져 자빠져 버리는 모습을 통해 '두꺼비'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가) 작자 미상, 사설시조
이 작품은 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여인이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여긴 나머지 급한 마음에 허둥거리며 달려가는 상황을 과장적으로 묘사하여,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두 작품의 시어를 비교 감상한다.

'두엄'은 '두터비'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찰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없다. '주추리 삼대'는 화자가 임이라고 여기게 했다는 점에서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가슴이 금주하여'는 관찰자 입장에 있는 화자가 '두터비'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적 대상인 '두터비'의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저야 님이로다'는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보고 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적 화자의 심리라고 할 수 있다. ⑤ ㉠에는 '내가 날렵했기에 그나마 피멍은 들지 않았더라'는 자화자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두터비'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는 '그나마 밤이와 다행이다'는 화자의 안도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는 자조적인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한다.

'희화'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가)는 '두터비'가 위세를 뽐내며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있다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 도망가려고 두엄에

서 뛰어내리다가 결국은 자빠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통해, (나)는 '주추리 삼대'를 에다게 기다리던 임으로 착각한 화자가 얼지락뒤처져 허둥거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통해 두 작품이 대상을 희화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곰비넝의 넝비곰의 천방지방 지방천방'에서만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 ② (나)에서 '살뜰이도'는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매우 지극하다'는 의미이다. '주추리 삼대'가 나를 속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반어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 '우의'라는 말은 '다른 사물에 빗대서 은연중 어떤 의미를 비유'를 의미한다. (가)는 탐관오리의 허장성세를 동물인 '두터비'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의적인 작품이지만, (나)는 우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24~27] (현대소설) 이창준, 『죽』

이 작품은 줄광대의 삶을 통해 장인들의 예술 세계에 대한 집념을 보여 주고 있다. 신문 기자로서 취재를 하기 위해 C읍을 찾은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외부 이야기'와 2대에 걸친 줄광대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부 이야기'로 구성된 액자 소설이다. 줄광대인 '허 노인'은 줄타기에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전념한다.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키려는 '허 노인'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소설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A]는 외부 이야기로 신문 기자인 '나'가 트림렛을 불던 '사내'에게 '허 노인'과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B]는 내부 이야기로 '사내'가 '허 노인'과 '운'의 사건을 관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B]에 등장하는 '사내'는 '허 노인'과 '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켜볼 뿐, '허 노인'과 같등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A]는 1인칭 시점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서술자가 된다. ② '나'는 [A]에만 등장할 뿐, [B]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③ '사내'는 [B]에서 보고 들은 '허 노인'과 '운'에 대한 이야기를 [A]의 '나'에게 전해 준다. 즉, '사내'는 [A]와 [B]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B]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A]의 사건보다 앞선다.

25.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어느 날 밤'에 '허 노인'은 딱 한번 줄 위에서 발을 헛디디는 실수를 한다. 그러나 객석을 쳐다보고 있었던 '단장'은 '허 노인'의 실수를 알지 못했다.

[오답풀이] ① '그 다음날'에도 '허 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듯 조용히 줄을 탄다. ④ '다음날'에 '운'은 줄타기 연습을 하다 드디어 '허 노인'이 원하는 줄타기 경지에 이르게 되고, '허 노인'으로부터 무대의 줄에 올라도 된다고 허락을 받게 된다. ⑤ 자신의 기력이 다했음을 알게 된 '허 노인'은 '운'과 함께 줄을 타다 줄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

26. [출제의도] 인물의 행동에 담긴 심리를 파악한다.

'허 노인'은 '운'이 자신이 원하는 '늘과 귀가 열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줄 밑에서 소리를 지른 것이다.

[오답풀이] '허 노인'이 '운'에게 소리친 것은 운의 귀가 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지, ③ 운의 줄타기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⑤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운'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② '허 노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운'은 드디어 생각이 멍에 머물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다. ④ '허 노인'이 소리를 질렀음에도 '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

고 줄을 건너가자, '허 노인'은 '운'의 줄타기가 자신이 원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허 노인'이 빙글레 웃으며 '운'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줄타기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은 '운'의 경지를 시험하기 위한 허 노인의 행동이지, 아직 '운'의 줄타기의 경지를 판단하며 기쁨을 나타내는 단계라고 할 수 없다.

27.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한다.

'허 노인'은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않아야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줄타기 자세를 바꾸라는 요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현실의 힘겨움으로 '단장'의 질책에 맘을 뻔뻔 흘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주를 부리라는 단장의 질책에 맘을 흘리는 '허 노인'의 행동을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깨닫고 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끝까지 줄을 타다가 생을 마감하는 '허 노인'의 모습은 자신의 업적성을 지키려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주막에서 '허 노인'이 '운'에게 하는 이야기는 일생을 통해 깨달은 줄타기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다. 이는 예술가나 장인들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통해 발견하는 근원적인 삶의 의미라 할 수 있다.

[28~30] (인문) 강신주,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이 글은 '성심'을 중심으로 장자 철학의 현대적 의미를 소개하는 글이다. 장자는 '성심'을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치우친 마음으로, 자기의 입장을 극대화하여 고정된 자기 관점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글에서는 '송나라 상인 이야기'와 '바닷새 이야기'를 통해 '성심'을 버려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정한 '소통'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국 이 글은 복잡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장자 철학이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서술 방식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은 '성심'을 중심으로 장자 철학에 대한 의미를 서술한 글이다. 주요 개념인 '성심'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1문단은 예화를 통해 '낯설'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2문단은 질문하는 방식과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성심'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3문단은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 후, 예화를 통해 '성심'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고 있으며, 4문단은 3문단에 제시된 예화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5문단에서는 '성심'을 버리고 '소통'에 이르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을 분석적으로 해석하였으며, 6문단은 장자 철학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 1, 3문단에서는 각각 '낯설'과 '성심'에 대해 예화를 인용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ㄱ), 2, 3문단에서는 질문을 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ㄴ)

[오답풀이] 이 글은 장자 철학에서의 '성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여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는 글로, 핵심 쟁점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을 비교, 분석한 글(ㄷ)과는 거리가 있으며 또한 장자 철학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글(ㄹ)이 아니다.

29. [출제의도] 글의 중심 개념을 이해한다.

'성심'이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치우친 마음으로 자기 입장을 극대화하여 고정된 자기 관점을 고집하는 것이다. '바닷새 이야기'에서의 '바닷새'는 노나라 임금에게 있어서 고유한 성질을 가진 낯선 대상이다. 이런 낯선 대상(타자)을 대함에 있어서 노나라 임금은 자신의 '성심'을 기준으로 바닷새를 대하다가 바닷새를 죽임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은 노나라 임금

이 '성심'으로써 바닷새를 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은 고유한 성질을 가진 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성심'에서 벗어나 대상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오답풀이] ㉡ ㉠은 '성심'을 버리지 못한 행위로 각자의 관점을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은 성심을 버린 행위이므로, 절대적 관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성심'은 타자와의 소통과 조화를 방해한다고 하였고 '성심'을 버리면 타자와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 '성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관점이므로 ㉠과 ㉡의 설명이 잘못 연결되었다. ㉤ ㉠에서 말하는 고정된 자기 관점을 고집하는 것이 '성심'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30. [출제의도]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에서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타자)과의 소통이 막힌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 관점으로 여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 생각('성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오답풀이] ㉠ 선부르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은 지금 당장의 낯선 상황을 잠시 피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대화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소통을 하라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자신의 상황을 부모님께 이해시키는 과정은 자신의 관점을 비우지 못한 것으로 '성심'을 따르는 행위에 가깝다. ㉤ 무조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자세는 자신을 비움으로써 타자와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31~33] (사회) 이학식 외, 「소비자 행동」

이 글은 제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태도를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을 통해 설명하며, 이 모델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여러가지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속성 만족도-중요도 모델'을 소개하고 있으며, 2문단은 만족도와 중요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소비자의 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3문단은 만족도와 중요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는 자동차를 예로 들어 실제로 소비자의 태도를 계산하고 있다. 5문단은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서 중요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속성의 경우에는 그 값을 '0'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족도가 어떤 값을 보이더라도 그 곱의 결과는 항상 '0'이므로 태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답풀이] ㉠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상품에 대해 취하는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문단에서 소비자의 태도는 개별 속성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곱한 값들을 합한 점수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문단에서 만족도는 개별 상품의 어떤 속성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므로 객관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중요도는 상품의 특정 속성에 대해 소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중요도는 같은 종류의 상품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32.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통해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 제품의 디자인 만족도는 '+2'로 [가] 제품의 디자인 만족도, [다] 제품의 디자인 만족도보다 크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나]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에 비해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3문단에서 소비자는 태도 점수가 높게 나올 경우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으므로 태도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 소비자의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화질이 '+7'로 가격, 사후 관리, 디자인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화질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가] 제품은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0'이므로 가격의 중요도가 바뀌더라도 두 값을 곱한 경우는 '0'이 되어 태도 점수에 변화가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가] 제품의 만족도는 화질(+5), 사후 관리(+4), 가격(0), 디자인(-1)이므로 화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다] 제품의 사후 관리 속성에 대한 만족도를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면 '-3'으로, '+4', '+1'인 [가], [나] 제품보다 만족도가 낮다. ㉠은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속성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에 부합하는 기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속성을 개선하는 경우인데 <다> 제품은 화질에 대한 만족도가 '+5'로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다. 따라서 ㉠과 관련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다. ㉢, ㉣ 기업의 사회 공헌 내역, 해당 제품의 음질은 소비자가 고려하는 속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속성을 부각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 디자인의 중요도를 변경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속성의 중요도를 높이는 전략이므로 ㉠과 관련된 전략이 아니다.

[34~36] (교전 소설) 허균, 「홍길동전」

이 작품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영웅 소설로, 홍길동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길동은 조선시대 홍판서의 시비 춘심의 소생이다. 길동은 어려서 도술을 익히는 등 영웅의 기상을 갖고 있지만, 천생인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러다가 초남의 모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도술로 위기를 벗어내고 집을 떠난다. 그 후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된 길동은 빈민을 구제하고 탐관오리를 징치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길동을 없애고자 하지만, 길동의 능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병조판서로 임명한다. 그 뒤 길동은 고국을 떠나 율도국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34. [출제의도] 교전소설의 서술 방식을 이해한다.

소설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하여 진술하는 방식과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 등이 있다. [A]에서는 대감과 관상녀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으며, [B]에서는 대화와 행동이 아니라 서술자가 초남의 행적을 요약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설명한 것은 ㉤라고 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설화와 교전소설의 공통점을 찾는다.

이 글에서 초남은 길동 모자를 해칠 목적으로 관상녀와 짜고 길동을 모함한다. 결국 대감의 부인은 길동을 해치자는 초남의 계략에 동의를 하고 특사라는 자격을 보낸다. 그러므로 길동은 주변 사람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아기장수는 주변 사람의 모함이 아니라 당시의 통병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오답풀이] ㉠ 길동의 태몽에는 용이, 아기장수의 태몽에는 신령이 등장하고 있다. ㉡ 윗글의 대감은 길동이 영웅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보기>의 부부는 아기가 장수가 될 재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③ '역모'란 기존의 왕을 중심으로 한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동과 아기장수 모두 역모를 꾀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⑤ 대감은 길동의 바깥출입을 금하려 하며, <보기>의 부부는 아기장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려 했다.

36. [출제의도]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인물을 이해한다.

중략된 내용을 초냥과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추론하면, 초냥은 대감에게 가문에 화를 부를 수 있는 길동을 해치자고 설득하지만, 대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초냥은 흥 씨 가문을 위해서 길동을 없애야 한다고 부인을 설득하고 있다. ② 대감은 천생인 길동이 분에 넘치는 마음을 먹으면 큰 재앙이 가문에 미칠 것이라며 근심하고 있다. ③ 부인은 길동을 해치자는 초냥의 말에 그것은 인정과 도리에 어긋난다며 거절하지만, 재차 초냥이 가문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설득하자, 결국 허락할 한다.

[37~39] (시나리오) 이창동·임철우·박광수, 「그 섬에 가고 싶다」

한국전쟁 당시 낙월도라는 섬에 인민군들이 진주해서, 반동분자를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섬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이웃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해친 것은 인민군이 아니라 변장한 국군이었다는 사실과, 섬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은 '문덕배'의 농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영감을 금치 못한다. 40년이 흐른 지금에도 마을 사람들은 '문덕배'의 관을 실은 배가 낙월도에 들어오는 것을 기를 쓰고 반대할 만큼 아직도 지난날의 원한과 미움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은 채 응어리져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이해한다.

'순돌'은 '동팔'에게 "머시 어째야? 지랄? 문가네 깨? 너 말 다 했냐?"라고 하며, "지랄하고 자빠졌네. 성님은 언제부턴 문가네 개노릇을 하게 되었소?"라는 '동팔'의 말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순돌'은 "아, 이놈에 자숙, 말하는 본새 좀 보소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다고 배알이고 체면이고 다 팔아먹는 단 말여?"라는 '동팔'의 말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철'을 대하는 '동팔'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8. [출제의도]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다.

'김철'의 "돌아가신 양반이 생전에 유언을 그렇게 했다는 걸세. 자기가 죽으면 꼭 낙월도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 부모 뜻을 어떻게 저버리겠냐?"라는 말로 보아, ㉠은 꼭 낙월도 고향에 묻히고 싶은 '문재구'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영화로 형상화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A]의 중반부를 보면 모두들 술을 마시지만 김철은 손에 든 술잔을 바라보지만 할 뿐 마시지 않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로 보아 김철은 주변 분위기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40~42] (예술) 김병화, 「추상표현주의」

이 글은 자유로운 기법과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화가 개인의 개성과 무의식을 드러내려 했던 추상표현주의의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

을 대표하는 화가인 잭슨 폴록의 예술적 경향과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잭슨 폴록은 드립잉 기법, 액션페인팅, 전면회화 등을 통해 과거의 관습적인 회화적 기법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과 내면세계를 표현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개발적 정보를 파악한다.

이 글은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인 잭슨 폴록의 회화적 기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잭슨 폴록의 드립잉 기법, 액션페인팅, 전면회화의 여러 기법을 중심으로 그 경향을 설명하고 있으나 ②처럼 그의 회화가 어떤 경향으로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답풀이] ① 2,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⑤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글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감상한다.

이 글에서는 잭슨 폴록이 기존의 회화적 관습을 거부하고 개인의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려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지각 가능한 형상을 표현하지 않고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여 개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가)의 드립잉 행위는 ①처럼 자신의 무의식을 드러내려는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개념의 의미를 바탕으로 추론한다.

㉠은 잭슨 폴록의 회화적 기법이 화가의 '능동적 행위'를 구현한다는 것으로 이는 화가가 어떤 목적에 통제를 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려는 순간의 영감을 표현하는 행위와 관련 있다. 이 점은 잭슨 폴록이 구체적인 대상을 그려내지 않는, 즉 대상이 지닌 의미를 전달하려는 화가의 태도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무의식이나 내면세계를 드러내려는 점과 관련 있다. 따라서 ㉠은 ②의 '대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43~45] (과학) 김경의 외, 「생활환경과 기상」

이 글은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집중 호우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다. 집중 호우를 내리게 하는 구름은 바로 적란운이다. 적란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따뜻한 공기가 대기의 상층으로 올라갔을 때 이 공기 덩어리가 주위의 대기보다 따뜻한 상황이 계속되면 발생할 수 있다. 상승하는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가 상승 과정에서 냉각, 응결하면서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될 때, 열이 방출된다. 이 열이 공급되어 상승하는 공기가 스스로 고도를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물이나 얼음의 알갱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름들이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두터운 구름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구름을 적란운이라고 한다. 적란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상층으로 올라가는 공기의 덩어리 자체가 매우 따뜻하고 습해야 한다. 적란운이 비를 내리게 하면 적란운 바닥과 지표 사이의 차가운 공기가 주위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주위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있다면 다시 적란운을 만들어낸다. 적란운 바닥의 높이가 낮다면 차가운 공기가 주변으로 퍼지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옆에서 유입된다면 다시 적란운 옆에 새 적란운을 만들고, 이것이 성장하여 비를 내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집중 호우의 메커니즘이다.

43.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구름은 주변 대기보다 온도가 높을수록 더 크게 발달한다. 2문단 중간에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대기보다 차가워지는 수준에 이르면 구름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적란운이 발달하는

이유는 구름 생성 과정의 열 때문에 주변 대기보다 계속 따뜻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④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소나기와 집중 호우 모두 적란운에서 발생한다. ② 응결이 일어나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열의 방출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공기 중의 수증기가 냉각,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되어 구름이 형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⑤ 1문단에서 하루에 연 강수량의 10% 이상의 비가 내리면 집중 호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정보들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적란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상층으로 올라가는 공기의 덩어리 자체가 매우 따뜻하고 습해야 한다. 2문단을 보면,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경우에는 수증기가 냉각, 응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덕분에 보통의 구름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도 계속 구름으로 발달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란운의 발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이다.

[오답풀이] ① 지표면 주변의 하강 기류는 적란운 발생과 관련이 없다. ② 상승하는 공기 주변의 지형이 구름의 발생과 관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적란운 발달 자체와의 관련성은 적다. ④ 구름 속 얼음 알갱이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문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⑤ 구름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바람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제시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45. [출제의도]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한다.

적란운 바닥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차가운 공기가 주변으로 퍼지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옆에서 유입된다. 그러면 또 다시 적란운 바로 옆에 새로운 적란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성장하여 비를 내리게 하여 적란운이 반복해서 생긴다고 했다. 하지만 4문단에서 적란운의 바닥과 지표 사이에 있는 공기의 양이 적은 것이 집중 호우의 한 요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 바닥과 지표 사이의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집중 호우의 가능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지표에서 수백 미터에 불과한 고도에서 적란운이 형성되는 경우 집중 호우가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의 바닥과 지표 사이의 높이가 낮다는 점은 집중 호우를 만드는 조건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③ ⑤가 더 발달한다면 기존의 적란운과 비를 내리게 하는 지역이 겹치므로 그 아래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단시간에 내리게 할 수 있다. ④ ㉠가 만약 습기가 적고 차가운 공기라면 새로운 적란운을 형성하기 어렵다. ⑤ 3문단을 보면, ㉠가 비에 의해 차가워진 공기와 만나 새로운 적란운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